

## 전 윤 정

-불편한 드로잉

나의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종이 위에 가느다란 펜으로 그리고 글을 써 넣는 드로잉 연작들, 둘째 캔버스에 0.2mm 라인테이프를 겹쳐서 쌓아올린 회화 형식의 평면 작품, 셋째 전시공간에 가벽을 세우고 실제 공간과 연결하여 라인테이프를 형상을 만드는 설치작품이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것이 옳은 행동인가? 타인과 주고받은 감정 속에 생기는 오해, 실재 발생하지 않은 일들의 고민은 내밀함속 복잡한 심리적 감정 안에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입을 굳게 닫으며 고요함을 가진다.

하지만 수많은 생각 속에 미처 드러내지 못한 감정의 이미지들이 드로잉 속에 겹치고 쌓여져 형상을 이루며 드러내 보이지 못한 감정 안에서 불편함을 지닌 드로잉을 만들어 낸다.

나는 구름 속에 들어 있는 형상과 같이 어떤 순간에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드로잉 한 이미지로만 표현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의 작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내밀함 속에서 표현 불가능한 감정의 표현을 드로잉의 방식을 통해 드러낸다.

그리고 보이지 못한 감정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들을 라인테이프라는 도구를 통해 겹치고 쌓고 촘촘하게 박힌 검은 형상들을 통해 무의식적 감정과 감각을 드러내는 이러한 작업을 불편한 드로잉이라고 부른다.

나의 내밀함 속에 사람들과 혹은 일상 환경에서 겪는 불편한 감정이 바탕이 된 불편한 드로잉은 단순한 감성적 선의 드로잉이 아니라, 드로잉선 자체가 의식적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인 테이프라는 드로잉 도구로서 재료의 생경함과 드로잉의 표현적 불편함을 이용하여 불편한 감정에 대해 불편한 방식의 드로잉으로 재현한 작업이다.



open space, 93.9cm X 130.3cm, black line tape(0.2~0.3m) on canva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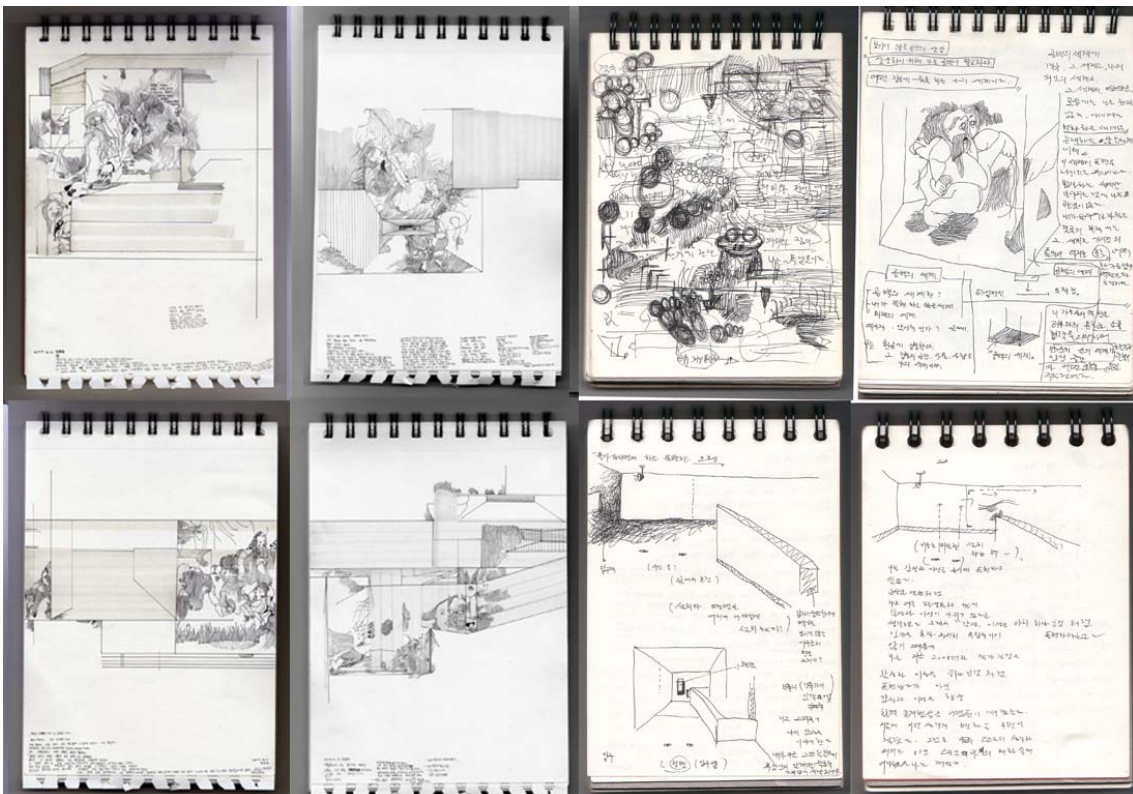
installation view, black line tape(0.2~0.3m) on canva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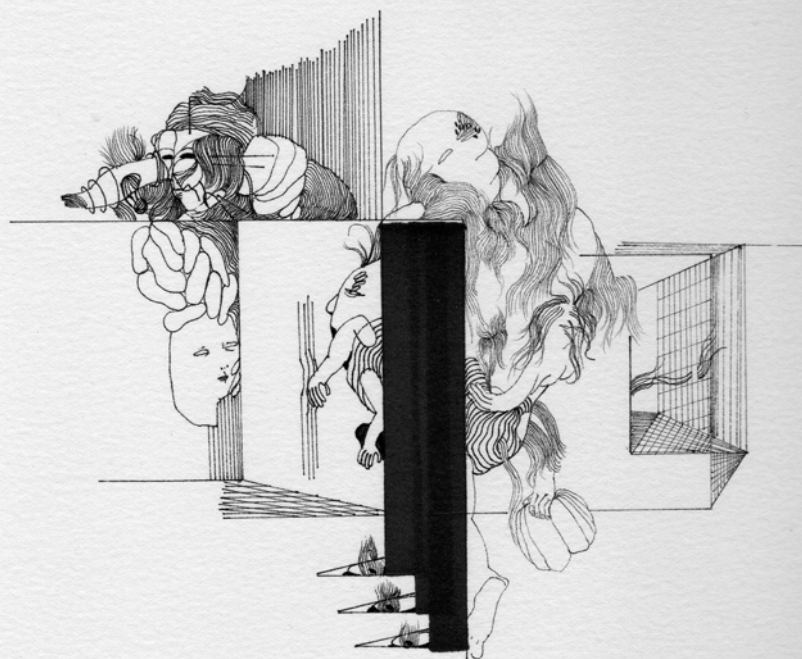
Untitled, installation view, black line tape(0.2~0.3m) on wall, 2010



Untitled, installation view, black line tape(0.2~0.3m) on wall, 2010



Untitled, drawing, pen on paper, 2010



2010. 6. 2

untitled 2010 drawing on paper 210mm X 297mm



Untitled, installation view, black line tape(0.2~0.3m) on wal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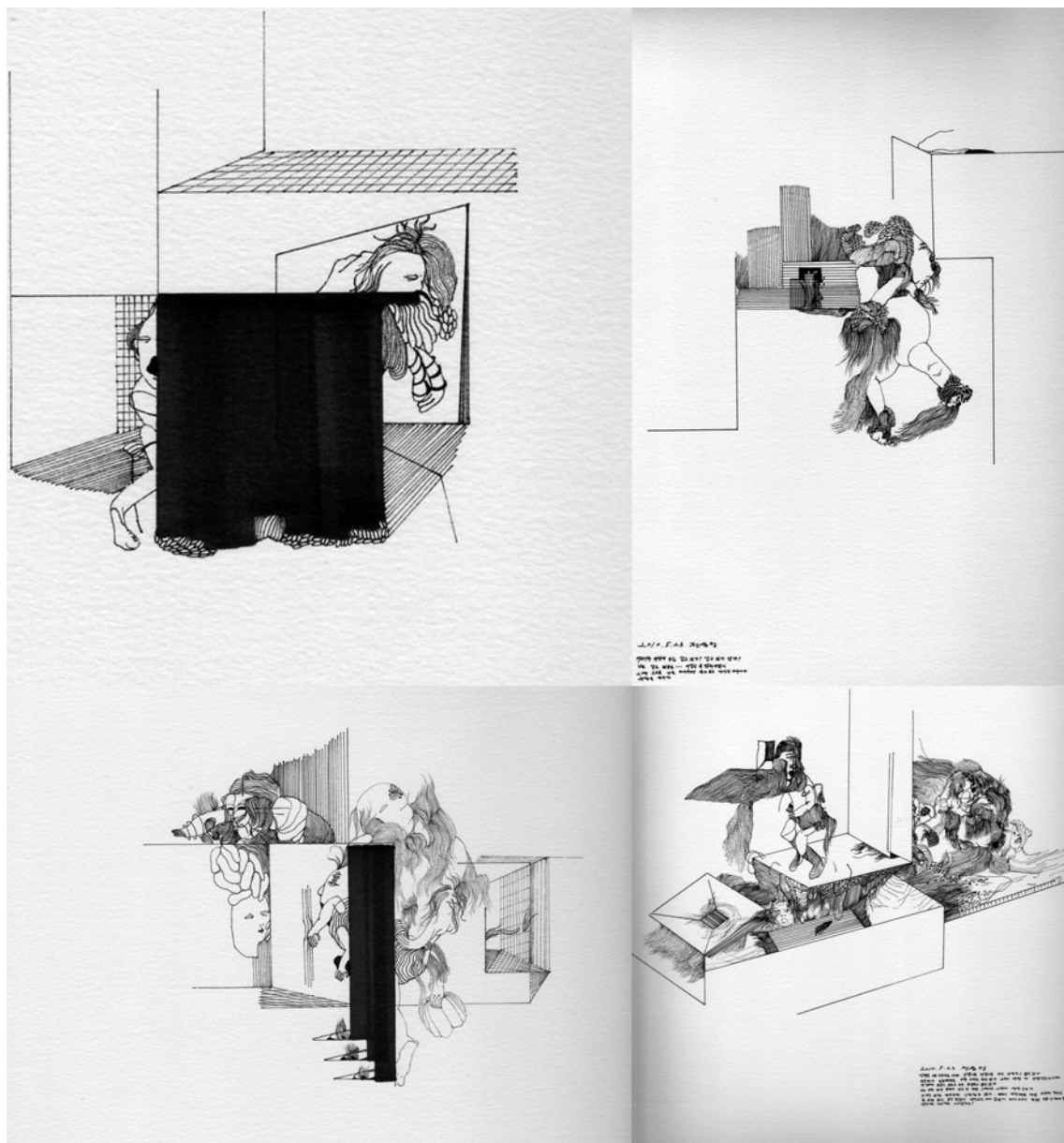
Untitled, installation view, black line tape(0.2~0.3m) on wall, 2010



escape series(door), (138cm X138cm)X2, black line tape(0.2~0.3m) on canvas, 2009



Untitled, installation view, black line tape(0.2~0.3m) on wall, 2009



Untitled, drawing 1, 26X37(mm), pen on paper, 2010



Untitled, installation view, black line tape(0.2~0.3m) on wall, 2009



Untitled, installation view, black line tape(0.2~0.3m) on wall, 2009



escape series(crying face), 73cm X 116cm, black line tape(0.2~0.3m) on canvas, 2008



escape series(Gloom), 93.9cm X 130.3cm, black line tape(0.2~0.3m) on canvas, 2008



escape series(two face), 73cm X 116cm, black line tape(0.2~0.3m) on canvas, 2008